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 가동

전북자치도교육청 누리집에 개설… 본인인증 없이 누구나 익명 제보 가능

공금횡령 · 금품 수수 등 중대비위 발생 시 금액 상관없이 수사기관 고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더 청렴한 전북교육'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했다.

익명제보시스템은 공직비리에 대한 제보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감사부서에 전달할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본인인증 절차 없이 누구나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해 신고 접근성을 높였고, 또 제보 내용은 철저하게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직무관련 범죄 고발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개정,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고발 지침 개정으로 부패공무원 등을 엄정히 처벌하고, 공직부패 ·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소속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공금횡령 또는 금품 및 향응수수 등의 범죄행위를 한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100만원 이상으로 한정돼 있었다.

서거석 교육감은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 도입과 직무관련 범죄 고발 기준 강화를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앞당기겠다"면서 "공직기강을 무너뜨리는 일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3일 전주그랜드힐스턴 세미나실에서 지역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등과 학교 밖 청소년 전북에듀페이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학교 밖 청소년 전북에듀페이 지원 효과성 향상

전북자치도교육청, 지역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등과 협의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3일 전주그랜드힐스턴 세미나실에서 학교 밖 청소년 전북에듀페이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미설치지역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의 소통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며, 전북에듀페이 지원 중간 점검과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 16일 서거석 교육감과 학교 밖 청소년이 직접 만나는 소통 · 공감 행사를 개최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왔다.

이날 협의회에 참여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계자는 "전북에듀페이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찾아주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노경숙 학교안전과장은 "전북에듀페이 지원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감사드린다"며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의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차세대 연료전지 국제표준화 밑그림 제시

이홍기 우석대 산학협력부총장, IECEX 국제수소콘퍼런스서 특강… "교육프로그램 접목"

우석대학교 이홍기 산학협력부총장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IECEX 국제수소 콘퍼런스에 참석해 특강을 펼쳤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우석대에 따르면 이홍기 부총장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연료전지위원회(TC 105) 의장 자격으로 콘퍼런스를 찾았다. 특강에서 '연료전지 국제표준 동향과 산업현황'을 주제로 차세대 연료전지 표준화에 대한 답대한 밑그림을 제시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수소산업 제품 및 설비에 관련된 시험은 물론 부품들의 설치 방법까지 국제규격을 제정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수소산업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세계적인 행사다.

이에 수소테크를 특성화 분야로 추진 중인 우석대학교 글로컬30추진본부는 국제적인 동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이를 바탕으로 수소중심대학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한편 이번 콘퍼런스에는 한국에서 우석대학교가 유일하게 참석했다.

이홍기 부총장은 "글로벌 경쟁체제가 갈수록 심화하는 가운데 수소산업의 국제적인 규제 방향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한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콘퍼런스를 계기로 한국 수소산업의 새로운 변곡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설정된 새로운 방향성을 우석대학교의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에 접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학교 이홍기 산학협력부총장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IECEX 국제수소 콘퍼런스에 참석해 특강을 펼쳤다. 〈사진=우석대학교 제공〉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걸어서 유교문화 속으로' 성료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센터장 서정화)는 도민과 함께하는 '걸어서 유교문화 속으로!'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3일 밝혔다.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2박3일 동안 전북 도민 30여 명과 함께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현장답사와 강연 청취를 통해 유교문화의 친숙도를 제고하고 유교문화의 지역적 특성을 이해하며, 다른 지역 유교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프로그램 답사 지역은 서울 · 경기 권역이다. 첫날은 채제공 선생 뇌문비, 정몽주 선생 묘소, 남한산성을, 둘째 날은 유교문화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성균관(문묘), 창덕궁, 종묘, 경복궁, 덕수궁을, 셋째 날은 수원화성과 허균 선생 묘소를 둘러봤다.

또한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안성은 선생의 '병자호란의 상흔과 남한산성' 강의와, 동국대학교 홍웅호 교수의 '20세기 초반 동북아 정세와 덕수궁' 강의를 청취했다.

'걸어서 유교문화 속으로!'는 유교문화에 관심이 있는 전북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비용은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호원대 강예훈, 학산김성률장사배 전국장사씨름대회 개인전 우승

호원대학교 씨름부가 '제21회 학산김성률장사배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대학부 개인전 우승을 차지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창원시 진해문화센터체육관에서 열린대회에 참가, 경장급(-75kg) 강예훈 선수(스포츠무도학과 1년)가 결승에서 이 체급 최강자 경남대 선수를 2대 0으로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제3회 글로벌 샐러드볼 행사 성황리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천)은 지난 2일 본교 체육관에서 외국인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글로벌 샐러드볼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과 외국인 주민의 친밀감을 높이이 위해 3회째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네팔,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주민들이 참석했다. 식전행사로 △난타 △소고춤 △버스킹 등의 공연이 펼쳐졌다. 이후 참석자들의 장기자랑이 이어졌다. 우즈베키스탄 민속 공연, 베트남 전통 가무 등 총 10팀이 참가해 열전을 벌였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의대 실험실 창업기업 경성대와 혁신적 연구 '맞손'

나눔스페이스-경서대 제약공학과, 산학협력 협약

학술 공동연구 · 정부 과제 · 검사 분석 등 수행

전북대학교 김민걸 교수(의대 약리학교실)가 실험실 창업으로 설립한 ㈜나눔스페이스가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경성대학교 제약공학과(학과장 송일대)와 손을 맞잡았다.

3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제약공학 분야에서 학술 및 임상연구를 함께하고, 정부과제 기획 및 검사 분석 등을 수행키로 했다.

또한 공동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상호 간 인력을 교류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김민걸 ㈜나눔스페이스 대표는 "㈜나눔스페이스의 혁신적인 기술과 경성대학교 제약공학과의 학문적 연구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연구 시너지가 창출되고, 이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지속적인 협력으로 다양한 공동 프로젝트와 연구 과제를 발굴 · 수행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일대 교수는 "이번 협약은 제약공학과의 연구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연구 경험을 제공하고,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눔스페이스는 2022년 1월 설립, 벤처기업 인증, ISO9001:2015 등 다수의 인증과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비대면 임상시험에 활용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임상시험 데이터 수집 기획부터 분석까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반도체 분야 핵심인재 양성 '탄력'

반도체전공트랙 3차년도 사업비 10여억원 확보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반도체전공트랙사업'에서 우수 평가를 받아 3차 년도에 10억3,4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반도체 분야 핵심인재 양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

3일 전북대에 따르면 사업단은 반도체 설계교육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다양한 반도체 설계 비교과과정 운영, 채용연계 표준형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산학 프로젝트 수행 실적 등에서 우수평가를 받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당초 지정 예산인 9억원에 추가 예산을 포함해 모두 10억3,400만원을 확보했다.

2022년 이 사업에 선정된 전북대는 전자공학부 주관으로 반도체 전공트랙 교과과정 및 이수체계를 수립하고, 반도체설계교육지역센터(JSEC)가 설계 비교과과정 및 산학협력 실무교육과정을 전담하는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앰코테크놀로지 코리아와 채용연계 표준형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실무능력을 함양한 반도체 전문학사 인재를 배출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2022년 15명, 2023년 6명의 학생들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조건을 갖춰 정규직으로 채용 전환됐다. 이외에도 반도체전공트랙데이, 산학워크숍, 반도체설계경진대회 등 지속적인 환류를 도모해 왔다.

한편 추가 예산 확보에 따라 사업단은 올해 3차년도에는 △패키징 실습실 및 인프라 구축, △혁신융합대학사업(반도체 소부장) 연계 교과목 개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반도체 특성화대학지원사업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부-대학원 연계 지원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김기현 반도체전공트랙사업 총괄책임자는 "전북대학교가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대한민국의 종합반도체 강국 도약에 기여하고,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반도체 전문 인재양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6월 수능 모의평가 오늘 시행

도내 고3 재학생 · 졸업생 1만7210명 응시

6월 수능 모의평가가 오는 4일 오전 8시 40분부터 일제히 치러진다.

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6월 모의평가에는 도내 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등 총 1만7,210명이 응시하며, 이 중 재학생은 1만5,663명, 졸업생은 1,547명이다.

특히 6월 모의평가는 고3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생, 검정고시 합격자 등 올해 수능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어 '수능 중간평가'로도 불린다.

시험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 · 과학 · 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에 따라 국어 · 수학 · 직업탐구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유지되고, 사회 · 과학 탐구 영역은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이 선택 가능하다. 영어영역,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절대평가가 유지된다.

모의평가 문제 및 정답은 매 교시 종료 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 및 EBSi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평가 결과는 7월 2일 발표하며, 개인별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9등급)이 기재된다. 절대평가 방식의 영어영역 및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등급만 기재되며, 한국사 영역 미 응시자에게는 성적통지표를 제공하지 않는다.

한편 같은 날 치러지는 6월 고1 · 2 전국연합학력평가에는 도내 107개 고등학교 1학년 1만5,287명과 2학년 1만4,866명이 응시한다.

/장은성 기자